

만물의 시작

이 세상에 시간이 있기 전에는 거대한 나무들도, 웅장한 산들도, 또는 별로 수놓은 아름다운 밤하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무 것도 없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모양도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친능하신 말씀만 가지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몇백만 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시냇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읽을 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6일 걸렸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성경은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똑같이 말을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친능하신 말씀에 따라 모든 것 - 빛, 하늘, 마른 땅, 바다와 강들, 푸른 나무와 채소들, 해, 달, 그리고 별들, 불고기, 가축들과 야생동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창조하신 것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여러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아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흙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첫 여자,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길지로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몸과 뼈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처럼 완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육체를 주신 것 외에도 산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들에게만 육체와 영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창조물들에게는 그러한 영을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 땅과 그 위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책임 맡은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도시에나 시골에나 사방으로 날려져 있습니다. 동물을 마음대로 죽이고, 나무들을 자르기만 할뿐 다시 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지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것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마시고, 담배를 함부로 피울 때, 우리 몸은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약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다른 창조물들을 함부로 다루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것에 대해 찬양해야 합니다. 어느 다른 피조물도 우리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손을 잘 쓰는 피조물도 없고, 또한 우리처럼 영을 가진 피조물은 더더욱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자, 다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습니다.